

표지 설명 : "예수 탄생", 네덜란드 화가 제라드 반 혼도스트(1590-1656) 그림

성도의 빛 12

198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애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오르스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랙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케이
조지 피 리

차례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대관장단	1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
크리스마스 심부름.....리라 엠 셀로우버.....	10
성탄절 선물.....마크 이 피터슨 장로.....	12
요셉 스미스의 영성.....딘 시 제시	15
요셉의 빨간 벽돌집 상점.....폴 토마스 스미스	25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를 입증함.....레나 엔 에버스	31
모든 좋은 선물.....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34
경전에 나오는 동물	42
아기 예수	43
선물.....레이 폴드립	46
해외 소식	50
지역 소식	51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연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232호, 제20권 제1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권 수
STOCK NO. PBMA0529KO PRINTED IN KOREA 12/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조유

International Magazine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우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 온 나라 백성에게 우리의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약 2천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진실로 그리스도요,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인류가 그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서 세상의 많은 것을 벗어나는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난 사건이 모든 역사의 중심점입니다. 우리가 경축하는 그 초라한 출생은 갓세마네와 갈보리의 그 무서운 사건의 전주곡이 되었으며 마굿간에서 시작하여 텅빈 무덤으로 끝난 그 성역을 회상할 때 성탄절은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성탄절을 함당하게 경축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기쁨에 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찬송가와 캐롤은 목자들이 들은 그 천사들의 찬송가를 계속해서 메아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선지자인 니파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나이 25:26)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고대의 외인들은 신앙과 희망을 갖고 그가 오실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드리며 그의 육신의 성역을 회상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가 다시 오실 날을 희망과 신앙을 갖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절기의 유희나 장사를 넘어서 우리가 경축하는 분을 바라보도록 간주합니다. 성탄절을 경축하는 많은 국가에는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찬 봉사를 통하여 구세주를 경배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구세주께서 보이신 친절, 용서, 개인적인 의가 온 세상의 해일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베들레헴의 빛나는 별이 박사들을 구세주에게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같은 생활이 아직 자기 구세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밝은 신호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희망과 평화를 찾는 것이 이 성탄절 절기에, 또한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97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인 및 가족 학습을 위하여 대관장님의 지시로 재게합니다.

이 위대한 복지 사업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의 기본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고 이 세대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영적인 유산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혀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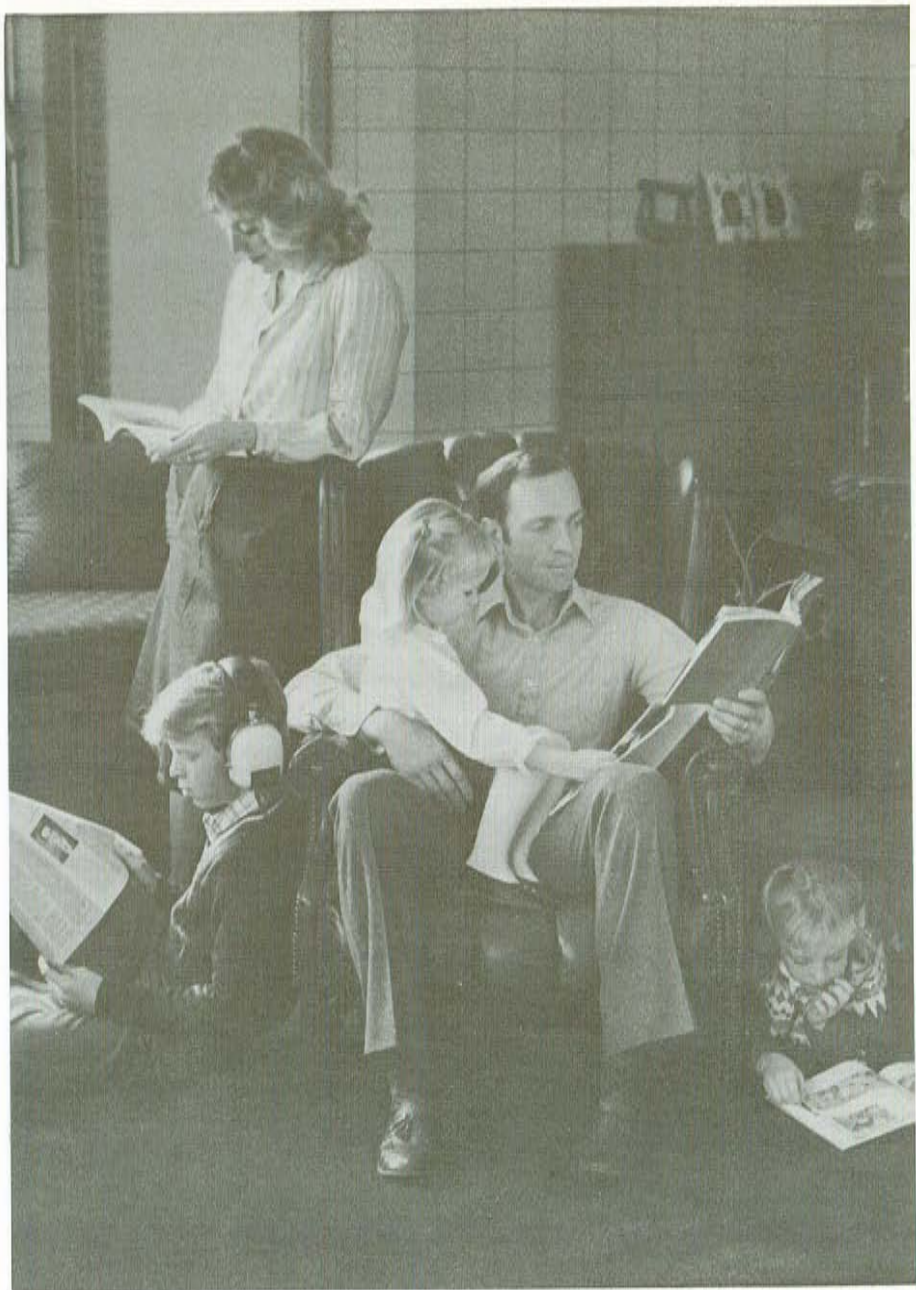
이 땅의 첫번째 경륜의 시대 이후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녹의 세대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 저들 산 위에서도나 높은 곳에서도 복

을 받아 번성하였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7-18)

자비로운 배나민왕이 말한 이 진리로 우리는 불문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지도자와 배우는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



...독서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좋소."

: 26).

니파이사서에서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네 세대 동안의 로움 가운데서 생활할 때 축복을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시온을 보고 환희에 잠기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3, 16절)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서 약 4세대 전에 주님은 또다시 현대의 시온에 대한 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할지이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섬기나,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 같이 진실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 24-27)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1900년에 이미 이 복지 사업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육과 영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 생활을 하는 한,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는 영적인 구원의 복음 뿐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의 복음도 믿고 있습니다.……우리는 인간이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으로 선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의 복음, 경계의 복음, 그리고 절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복음 교리, 186 페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1936년에 대관장단이 현재의 복지 계획의 형태로 이 개념을 재확립시켰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시의 세대에게 이상적인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보다 완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완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대에 와서 그들의 말씀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층으로 인해 오는 불행 없이,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피치 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대관장단이 의도한 바는 오해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복지 사업은 성격상으로는 외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영적

모든 회원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후하게
금식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간을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며,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각자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을 기르고,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인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스테이크 부장단 특별 모임, 1936년 10월 2일)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볼 때, 우리는 많은 회원들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이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정복할 때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 위대한 교훈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보도록 격려할 때 그들이 훌륭한 성품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자제할 능력을 얻고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파악하게 될 때, 복음의 힘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신체적인(물질적인) 구원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감사하는 태도로 받는 자는 참된 시온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물질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자립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시온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치장을 하게 해주는 이 복음의 원리에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지 사업이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실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 사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업의 근본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 즉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모로 7:44-48; 눅 10:25-37, 14:12-14 참조)

둘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구원하며,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예언의 영에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렘 4 : 13)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 27)

세째는 일입니다. 일은 행복, 자기 존중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일은 모든 성취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태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창 3 : 19 참조) 실업 수당으로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복지를 얻으려는 의도는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일은 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생활의 신조이어야 합니다. (교성 42 : 42; 56 : 17; 68 : 30-32; 56 : 17 참조)

네째는 자립심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독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78 : 13-14 참조)

각 사람의 사교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의 우선은 그 개인에게 있고, 다음은 그 가족에게,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경우에 교회에 있습니다.

참다운 말일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인도와 자신의 노력으로써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 사항을 자신과 가족에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담전 5 : 8 참조)

다섯째는 헌납입니다. 이것은 희생까지도 포함합니다.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회원은 생산 사업에서 노동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나눔으로써, 관대한 금식 헌금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와드와 정원회의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헌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으로 시간을 헌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곧 헌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여섯째는 책임감입니다. 교회 회원에게는 누구나 신성한 영적 및 물질적인 신뢰가 주어졌으며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책임

을 지게 됩니다. (교성 104 : 11-15 참조) 충실한 종은 의롭게 관리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돌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봅니다. (교성 104 : 15-18 참조)

이상의 원리가 복지 사업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두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원에게 가르치시고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진리를 적용시킬 때 비로소 이상적인 시온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시온이란 주께서 그의 성약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실망하는 자를 성실하게 돌보는 자를 말합니다. (교성 97 : 21 참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모세서 7 : 18)

신권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이 반치는 사랑, 봉사, 일, 자립,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 등 헌납의 성약으로 묶여진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대로 생활하는 방법을 말해 주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여려해 동안 우리는 개인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 지시에 대하여 잘 응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에서 “계약하는 생활”으로써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 재정 문제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준비, 가정 생산 및 비축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정서면에서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밭을 갖고 있다면 식품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밭에 나가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으면서 함께 만나는 특별한 방문의 가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갈고, 수확하는 영원한 율법에서 얻게 되는 이 분명한 교훈의 유익한 점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성공적인 비축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가족의 단합과 협동을 어떻게 자로 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맹 퇴치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 교회 잡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양서를 읽을 수 있는 기쁨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친절한 말, 완전한 대화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힘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바르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생활할 때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유대인의 건넌제(집승을 통째로 구워 신 앞에 바치는 의식)나 제양에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얻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대비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폭풍우가 내리칠...때에 방어진이 되며...대피소가"(교성 115:6)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명하고 겸손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권 정권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개인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개념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식의 법에 관련하여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후

하게 금식 현금을 바쳐야 합니다. 이 현금은 적어도 두 끼를 금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식비를 바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조반으로 계란 하나를 먹으므로 불과 식사 비용이 몇 센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풍족할 때에는 식사비의 몇 배로 관대하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단 두 끼의 식사비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만 한다면 몇 십 배라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보고, 1974년 10월, 184페이지)

금식 현금은 가난한 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식 현금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현금이 충당될 수 있고, 복지 생산 계획에서 필요한 생필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보다 관대하게 금식 현금을 바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위대한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와 단계는 우리 자신에게나 주님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교훈을 잘 배웁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더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납하고 세상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구세주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 이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 없었더라.”는 기록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 즉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2. 일은 행복, 자기 존중,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일은 모든 성취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태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 각 사람의 사교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의 우선은 그 개인에게 있고, 다음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경우에 교회에 있습니다.

4. 헌납은 희생까지도 포함합니다.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모든 회원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금식 현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욱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잘될까? 자립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크리스마스 심부름

리라 엠 셀로우버

나는 수년 동안 성탄절이 되면 뉴욕 신문에 소개되는 궁핍한 가족들에게 의류를 한 보따리씩 보내곤 했다. 또한 성탄절에 관한 책도 함께 보냈다.

어느 성탄 절기에 남편 윌이 발을 멈추고 내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는 “당신은 우송료를 엄청나게 쓰고 있어. 내가 이것을 차로 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스테이션 왜곤에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아이디어에 몹시 기뻐했다.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비싼 겨울 옷과 음식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맨하탄, 브론크스, 브루클린 등의 구역 지도를 구하여서 그 장소를 찾고, 가는 길과 정차할 곳을 계획하는 동안 기쁜 마음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았다.

성탄절 전날 아침 일찍, 남편과 십대의 아이들이 스테이션 왜곤에 짐을 지붕까지 가득 쌓았다. 그날은 구름이 끼고 추웠으나 남편이 그 날씨와 타합한 것이라고는 모자를 쓰는 일뿐이었다. 그는

사무직원으로서 밖에서 일한 적이 별로 없었으나 충분히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다. 만일 차가 고장이 나면? 그가 길을 잃으면? 추위 떨면? 그는 지금 뉴욕의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해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걱정을 조금씩 더하게 되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남편이 저의 심부름을 갔읍니다.”라고 시작하다가 잘못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야, 그는 주님의 심부름을 간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짹짹 놀랐다.

남편이 단지 나를 위해서 갔고, 그의 안전은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선물 보따리를 운반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



로서 그가 보호받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일어서서 우리의 명절 준비를 계속했다. 아침에는 아주 조금씩 내렸던 눈이 점심 때는 눈보라로 바뀌었다. 오후에 나는 가까운 점포로 걸어가려 했으나 눈보라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없다면 그 도시에서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었다. 아직도 남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저녁에 아들들이 눈을 치우고 들어왔으며 한 아이가 “아빠 아직 안 오셨어요? 어디 계실까요?”라고 했다.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그 보따리를 전하고 계시지는 않을거예요. 아무도 문을 열어 주지 않을거예요. 걱정시키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괜찮을거야.”라고 아이들을 안심시

켰으나 나 자신도 차츰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크게 결심하고 부엌 시계 바늘이 밤 열 한시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하려고 애쓰면서 선물 포장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때 한 아이가 살았다는 듯이 큰소리로 “엄마! 아빠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라고 외쳤다.

나는 기뻐서 코우트를 움켜쥐면서 그를 만나러 나갔다. 남편이 차에서 나올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춥지도 피곤하지도 않은 것을 알았다. 그는 눈보라 속으로 15시간이나 험한 길을 다니며 폐차가 쌓인 곳을 돌아 눈도 치지 않은 거리를 보따리를 매고 다닌 사람 같지 않고 그저 30분 정도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갔던 온 사람 같았다.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찾았어.”라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안전하게 다녀 온 것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방법을 내가 좀더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다. *

성탄절 선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1984년 1월에 별세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음.

거의 2천년 전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가 다윗왕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녀의 직계 가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마리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온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크게 놀랐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그러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아기는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그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거룩하게 되시리라고 천사가 설명하였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였으니 그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영혼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다. 그가 이스라엘 권속의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거룩한 구속주도 되실 것이 다라고 하였다.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였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에 의한 기적에 의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눅 1

: 26-35 참조)

천사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방문하였다. 요셉은 이해심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동정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예수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자 마리아와 요셉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 했다. 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하여 여인숙에 머물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할 방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다.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보다 먼저 와서 숙소를 모두 차지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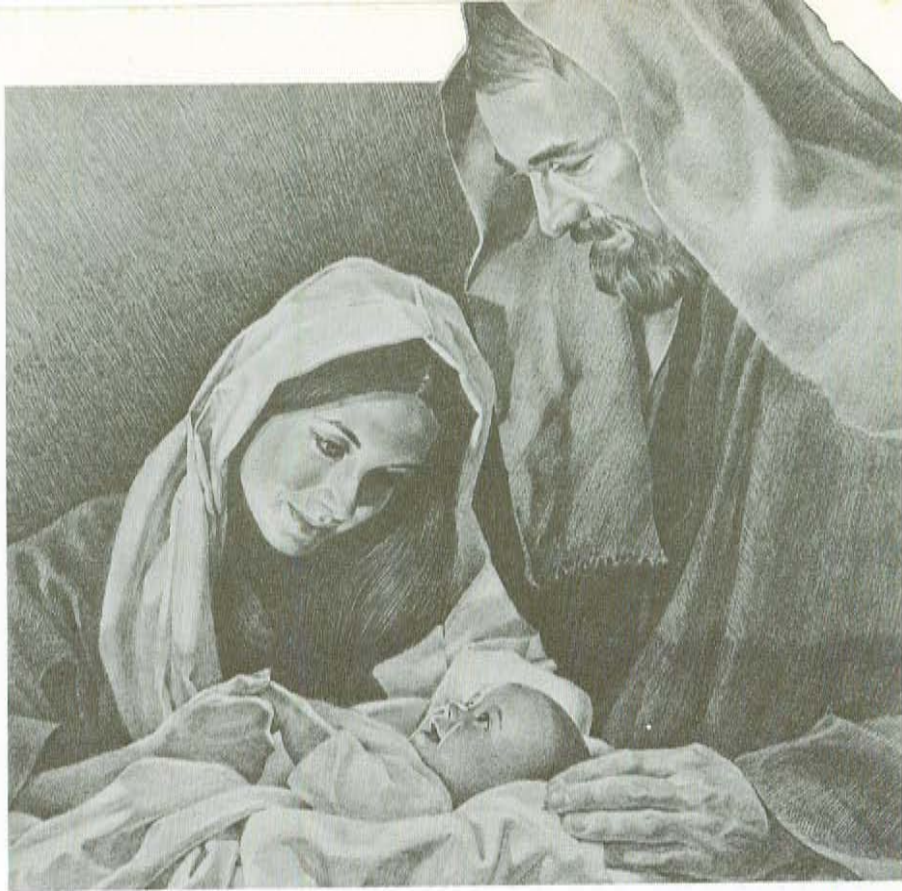
예수 탄생이 가까워지자 이 부부는 마굿간에서 거처를 마련하여 거기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여기에는 아기 침대나 기타 시설이 없었다. 그 어린 아기를 재우기 위하여 말구유에 눕혔다.

이것이 첫 성탄절이었다. 장식도, 가족 모임도, 뛰어 노는 어린이들도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는 가장 훌륭한 캐물이 들려 왔다.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여 큰소리로 합창하였다. 이제 세상의 구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될 때 부활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중에 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그의 선물 즉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이 기록한 아들이 지상에 태어남으로써 자신을 역사상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일어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누가 이보다 더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떤 선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인

내와 헌신과 충실함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처럼 참된 복음 원리를 따르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마리아도 자신의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아로부터 어른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돌보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간, 날, 달, 해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른다.

이 첫 성탄절을 통하여 또한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도 친절하고 사려깊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공정할 수

있다. 자비가 성품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순수(청결)함이 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 5:8)라고 가르쳤다. 우리도 누구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깨끗하고 순결해질 수 있다. 순수한 영적인 깨끗함! 여기에 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친지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가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부모에게 인봉되고 영원히 부모의 사랑하는 가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 아닐까? 이것도 그 첫 성탄절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한 거룩한 결혼 의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자녀가 축복받을 때 그들도 항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외에 또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까? 이것은 그 첫 성탄절 밤에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을 통하여 받는 축복의 한 부분이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있나?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은 모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선택하여 영원히 계속될 은사를 선택하도록 부탁하고 계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지기는 썩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지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그는 바로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26-33)

이런 것이 참된 성탄절 선물이다. 이런 것이 그 첫 거룩한 밤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우리가 참으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한 말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이런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녀의 즉 하나님의 아들——만인의 창조주, 구속주, 구세주의 구원 사업의 한 부분이 될 때 이런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

요셉 스미스의 영성

던 시 제시

일부 사람들에게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인정하는 것이 늘 어려운 일이었다. 옛날에 예수님을 관찰한 유대인은 “우리는 이 사람이 꾀인인 줄 안다…… 폭음 폭식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선언하였다.^①

요셉 스미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시련의 상황은 한결같았다. 한 가지 문제는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다라는 선입 관념을 그들 사이에서 견고 말하고 사는 사람에게 맞추어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일부 사람들의 선입관과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은 요셉 스미스의 친근한 성격이었다. 그를 처음으로 만나는 교회 회원들까지도 그가 그렇게도 마음이 통하고 쾌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면서도 기뻐하였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요셉을 방문했던 한 말일성도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가 예언자로서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기대했던 그

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친근하고 명랑하고 유쾌하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② 또한 어떤 개종자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요셉 스미스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는 엄숙하고 점잔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였다. 사실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솔직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나는 그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③

때때로 요셉은 그 명랑함으로 인하여 친근한 미소와 다정한 악수 뿐 아니라 육체적인 힘을 겨루는 놀이도 했다. 나부시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한 소년은 요셉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예언자는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맨션에서 나와 우리들과 함께 야구놀이를 했다.……요셉은 언제나 규칙에 따랐다. 그는 타자가 될 차례가 올 때까지 공을 받았다. 그는 매우 힘이 세었기 때문에 공을 쳐 휘두르면 공이 너무 멀리 날아가서 우리는 그 공을 잡으려 가는 아이에게 저녁 밥을 싸 가지고 오라고 큰소리로 놀렸고 예언

그는 때때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현을 축복받아
자신의 육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완전히 잊게 되었다.

자는 이 말을 듣고 웃곤 하였다. 요셉은 언제나 마음씨가 착하고 장난을 좋아하였다. 나는 그가 그의 사무실에서 양탄자 위에 앉아 나무 경관과 막대기 당기기(힘겨루기 시험)를 하는 것도 보았다.⑩

그러나 일부 사람에게는 요셉 스미스의 서민적인 요소가 신앙에 장애가 되었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한 가족이 “에언자 요셉이 번역실을 나와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러갈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다.⑪ 한때 물몬이었던 에즈라 부스는 교회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도록 선동한 사람으로서, 그는 오하이오에 있는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출판함으로써 요셉 스미스가 “습관적으로 농담을 잘하는 것”을 이유로 그의 에언자적 성품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⑫ 또한 요셉의 생의 최후의 수년 동안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물몬이 아닌 토마스 포드는 그의 역사에 이렇게 적었다. “에언자를 어둡고 우울한 사람으로, 긴 수염이 있고 엄숙한 외모에 몸을 움추리고 성자인 척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정반대로 그는 경쾌했으며 소년같은 놀이도 했다.”⑬

한번은 요셉이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

게 연설하면서 자신의 “장난을 좋아하고 명랑한 성품”을 인정하였으며⑭ 그는 자신의 역사를 적은 곳에서 자신이 “경솔한 행동을 범하였고 어떤 때에는 명랑한 우리들과 어울려” 다녔으며 이것은 “본래부터 가졌던 나의 쾌활한 성격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⑮

일부 사람은 요셉 스미스가 자신이 생각했던 에언자에 대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그는 1842년에 나부에 새로 도착한 이주민 무리에게 “훈계를 무시”한 결과 증오의 영이 들어왔으며 성도들 사이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옳게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다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⑯ 그는 이 주제에 관하여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물론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고발당한 죄목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읍니다. 내가 지지르는 잘못이란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성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일뿐입니다. 잘못을 조금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⑰

요셉의 종교적인 성향은 그의 가족의 유산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가정은 그의 영성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에언자는 자기 가족의 유산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기독교를 열심히 가르쳐 준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⑱ 그는 평생 동안 “자기 가슴의 서판 위에 새겨진 친

절한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㉔

요셉 스미스의 생을 피상적으로 연구하면 그의 종교적인 경험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긴 것같이 보이겠지만 그가 직접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을 위하여 미리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생 동안에 겪었던 혹독한 시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인간의 시기와 분노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매일과 같이 겪는 일이므로……내가 헤엄쳐 나가야 할 물은 깊나니” ㉕……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벌써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므로 조금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㉖

이런 확신에 대한 대가는 “시간, 경험 및 주의깊고 사려깊고 엄숙한 생각”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쌌다. ㉗ 그의 어머니는 어린 요셉이 항상 “무엇이든 종교적인 것에 그의 연령의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으며 사색하고 깊이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회상하였다. ㉘ 또한 그의 아버지는 축복사의 축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며 어려서부터 주님의 위대한 율법을 깊이 생각해 왔노라.” ㉙

요셉은 첫 시련에 관한 초기의 기록에서 그 사건에 앞서 있었던 노력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경건 탐구, 엄숙하고 진지한 느낌, 인류에 대한 열려, 경건과 교사들에 대한 적용, 여러해 동안의 사색, 부모의 가르침, 죄에 대한 슬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한 진지한 사색,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란 것 등이었으니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펜을 들어 그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자신의 죄를 인식함으로써 매우

비탄에 빠졌으며 경건을 상고함으로써 인간이 주님에게 나아온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살아 있는 신앙으로부터 배도하였으며 신앙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를 둔 사회나 종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경전에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또한 내가 지상의 영광스런 빛의 근원인 태양과 하늘을 통하여 장엄하게 움직이는 달과 자기 좌표에서 빛나는 별과 내가 서 있는 지구와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물의 고기와 아름답고 당당하고 힘차게 지표면을 걷는 인간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권세와 예지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여 이런 것을 창조하신 그분과 비슷할 정도이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 마음은 현인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외치게 되었다. 내 마음은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전능하고 항상 존재하는 권세,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며 모든 것을 그 한계선 안에 두시며 영원을 채우시며 모든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계시며 제실 분에 대하여 간증하며 또 증거하고 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과 진리로 그를 경배하며 그렇게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 주님의 자비를 구하여 울부짖게 되었다. 그분 이외에는 내가 가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 ㉚

요셉 스미스는 인생 초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르칠 수 있는 마음과 또 능력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지성인에게 전해진 빛에 열심히 귀기울이는 것에 비례하여 커질 수 있다.”^㉔

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귀기울였다.”는 것이 그가 평생 동안에 쓴 방대한 양의 종교 저술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그의 일기에 적힌 것을 무작위로 읽어 보면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난다.

“나는 우중에 말을 타느라고 몹시 피로해서 돌아왔다. 그날 남은 시간은 독서와 사색을 하는 데 썼다.”^㉕

“오후에는 심한 열이 나서 누워 있는 부친을 방문하였다……그날 남은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보냈다.”^㉖

“집에 있음. 오늘은 나의 부름에 따른 유익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데 주력하면서 보냈다. 오늘은 매우 유쾌하게 지냈으며 이것에 대하여 나의 영혼에 부어 주신 주님의 축복과 내 생명을 살려 주심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큰 자비에 감사드린다. 오 부디 저와 저의 가족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라나이다.”^㉗

“공부를 계속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문을, 언어까지 주셨으면. 또한 사는 동안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자질을 주셨으면”^㉘

요셉은 1832년 뉴욕시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는 오하이오주 커블랜드에 있는 휘트니의 가게 물건을 사기 위하여 뉴웰 케이 휘트니와 함께 뉴욕시로 갔다.

그는 뉴욕의 “가장 멋진 구역”을 산보하는 데 꽤 시간을 썼다.

“건물들은 정말로 멋있고 훌륭하여 보는 이마다 경외심을 갖게 할 정도이며 나는 가슴속으로 이런 말을 했오 : 지구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장엄하고 훌륭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추구하여 만

든 이 모든 위대한 발명으로 불쾌해 하질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오’였오. 이런 일이 인간을 편안하고 현명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니 그럴 수가 없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불쾌하신 것이 아니며 단지 인간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주님의 분노에 불이 붙는 법이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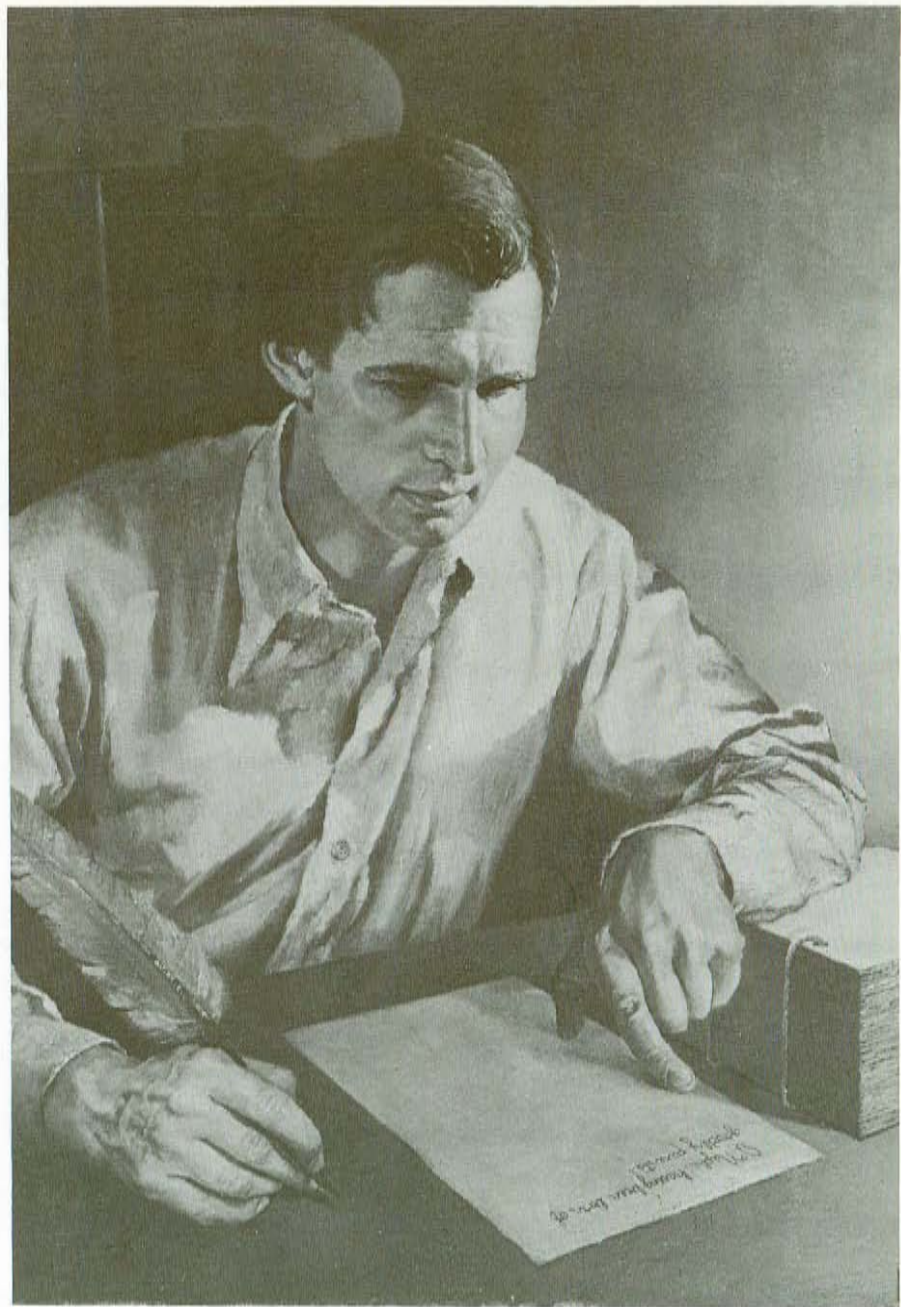
“나는 사색하고 마음에 평정을 찾기 위하여 방으로 돌아왔오. 그러자 당신과 딸 줄리아가 있는 집 생각이 흥수처럼 내 마음에 밀려들었으며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잠시 가져 볼 수 있었오. 내 마음은 부모와 남편으로서의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오. ……또한 이 위대한 도시를 회상할 때 내 집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으며 나는 내 음성을 높이기로 결심했오……또한 이 일을 하 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나는 길을 걸으며 인간의 어리석은 것을 보느니 독서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좋소.”^㉙

요셉은 휘트니 형제와 함께 이 여행을 하면서 심한 식중독에 걸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썼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매우 불유쾌하오. 나는 거의 날마다 마을 바로 위에 있는 숲에 가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명상과 기도으로써 내 마음속의 모든 느낌을 다 표출시킬 수 있오. 나는 일생에서 지나간 순간을 모두 회상하며 내 영혼의 원수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



요셉 스미스의
종교적인 추구는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편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주 하늘의 권세를 불러냈다.

렇게 큰 권세를 갖게 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셨오, 또한 나는 그가 당신을 믿고 그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혜사를 보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오.”⁸⁸

요셉 스미스의 종교적인 추구는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편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주 하늘의 권세를 불러냈다. 요셉은 초기에 하이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밤에 어떤 자매에게 병자 축복을 하기 위하여 조금 먼 거리를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오늘 아침 거기에 가서 사탄과 무서운 싸움을 했으나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그 악마는 쫓겨나고 그 여인은 건강을 되찾았오,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⁸⁹

그는 1835년 10월 처제인 메리 베일리 스미스의 침대 곁으로 불러 갔다. 그 자매는 분만 중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요셉은 형제인 돈 칼로스에게 의사를 데리고 오도록 보낸 다음 “들어

나가서 주님 앞에 고개숙이고 그녀를 위하여 힘찬 기도도 주님을 불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내 종 프레데릭(의사)이 와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받은 지혜를 갖고 내 여종은 산 아기를 낳고 목숨을 건지리라.’” 정말로 의사가 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기는 안전하게 태어났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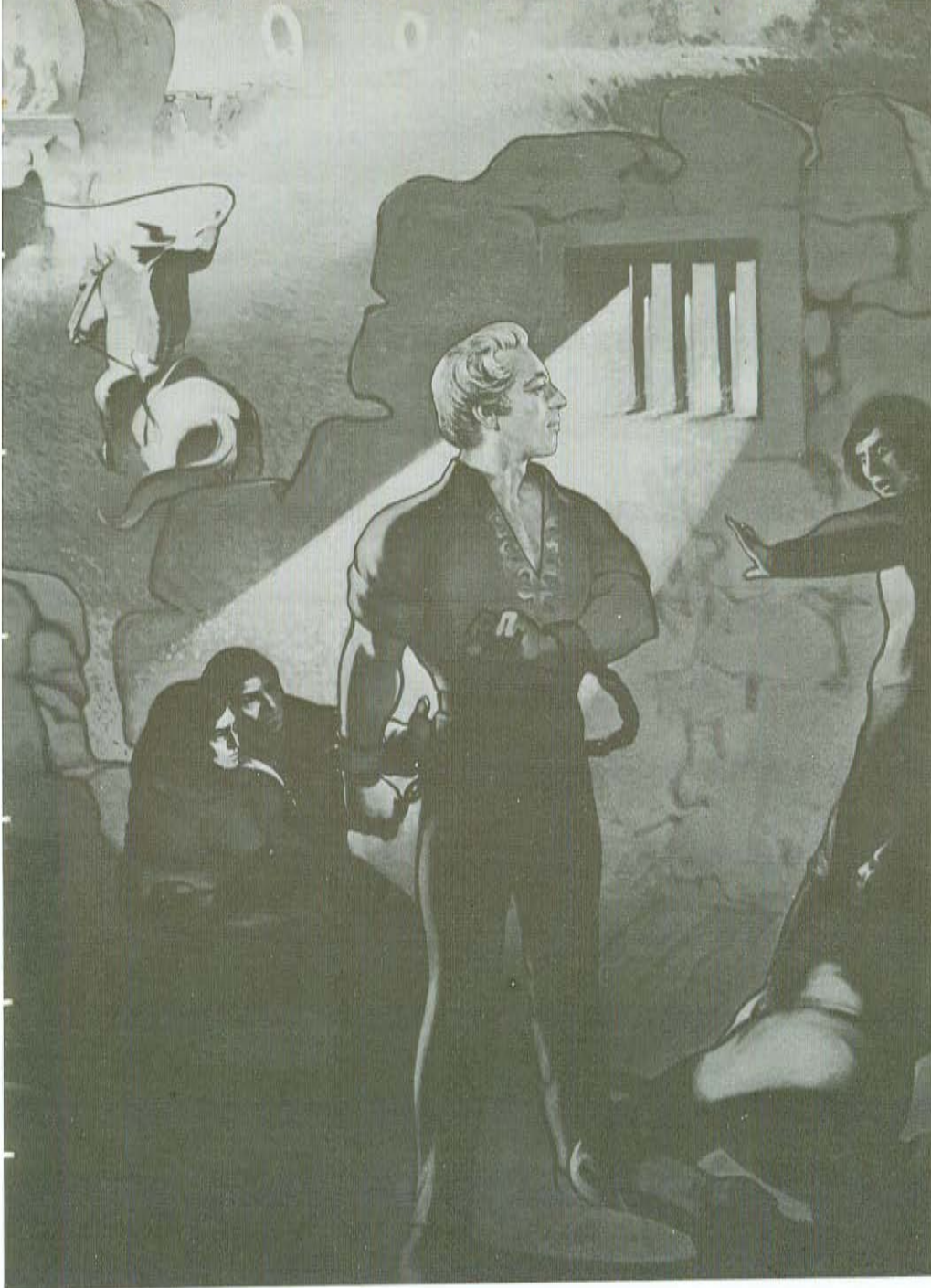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의 생애의 종교적인 주제는 그의 기록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글에서도 계속된다. 찰스 다니는 그의 아내가 나부에서 너무 아파서 죽을까봐 걱정했다고 적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요셉 형제에게 갔다.”

그는 예언자가 몹시 바쁘며 잃어버린 중요한 서류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다른 몇 사람과 함께 그 분실한 것을 찾으러 집을 나서는 틈을 이용하여 다니는 “그가 문을 지나갈 때 ‘요셉 형제님, 우리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됩니다.”라는 급한 대답이 나왔다.

그러나 찰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였다. “요셉 형제님, 제 아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곧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 나는 황급히 집으로 갔다……집에 도착하자마자 요셉 형제가 와서……이렇게 물었다. ‘부인께서 얼마나 오래 아프셨습니까?’ 그리고는 몇 분 동안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 나는 아내가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

폴 포리스트가 일리노이주 나무 방문자 센터를 위하여 그린 요셉 스키스의 인생의 파노라마에서 발췌한 장면.



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불 옆으로 가서 손을 녹이고 외투를 벗고 침대에 가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내에게 병자 축복을 하는 동안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았다. 그 병 또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악마의 권세를 이기고 아내에게 훌륭한 축복을 해주었다.”^①

나중에 요셉의 형인 하이람과 결혼한 매리 필들은 예언자가 1837년 여름에 심한 병으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그를 방문하였다. 당시에는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거의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매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행복한 것 같았다. 그는 병들었을 때의 느낌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하였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기에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는 원수가 쳐들어온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나 친구가 와서 좋은 영이 우세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그는 때때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현을 축복받아 자신의 육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완전히 잊게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요일 밤 신랄한 카터 형제와 다른 몇 사람이 주님의 집에 모여서 거의 밤이 새도록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카터 형제는 무덤이 그를(예언자) 받아들이려고 문을 여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으나……땅이 지절로 무너져 내려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이 가득 채워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때부터 그는 급격히 회복하여 3~4일 이내에 밖에 나갈 수 있었다. 물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

“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여
울부짖게 되었다.
그분 이외에는
내가 가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

히 기뻐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제거하려 할지라도 아직은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②

요셉 스미스 생애의 여러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자료의 일관된 주제는 그의 심오하고 지속적인 종교적 경험이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기 생에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고 더 잘 함께 사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였다.^③ 참으로 그의 영성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지배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다. 그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약점”이 있었고 생활 속에서 결점이 없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의 약점이 그 민감한 영적 대화의 통로를 막지는 않았다.

*

① 마 11:19, 요 9:24, 29.

② 조나단 크로스비, “조나단 크로스비가 직접 쓴 자신의 일생에 대한 간단한 전기”,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동굴 보관소.

때때로 요셉은 그 명랑함으로 인하여
친근한 미소와 다정한 악수 뿐 아니라
육체적인 힘을 겨루는 놀이도 했다.



③ 존 니드햄이 토마스 와드에게 1843년 7월 7일에 쓴 것.

④ 아로엣 헤일, "아로엣 엘 헤일의 일생과 여행에 관한 첫 서적 내지 일지", 교회 동굴 보관소.

⑤ 조지 에이 스미스, "조지 에이 스미스의 역사", 1833년 5월 24일, 교회 동굴 보관소.

⑥ 에즈라 부스, "편지 제7호", 오하이오스타, 1831년 11월 24일.

⑦ 토마스 포드, 일리노이주 역사, 밀로 엠 웨이페 편집, 시카고, 1946년.

⑧ 윌포드 우드럽이 1843년 5월 27일, 그의 일기에서 보고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 교회 정사, 5:411.

⑨ 요셉 스미스 역사, A-1권, 교회 동굴 보관소, 133페이지. 또한 교회 정사 1:9-10.

⑩ 교회 정사, 5:181. 이 말씀의 원 출처는 밝혀진 바 없음.

⑪ 엘리자 알 스노우가 1842년 8월 31일에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조직 및 절차 기록"에서 발표한 요셉 스미스의 연설,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요셉 스미스 교회 정사, 5:140.

⑫ 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 이세의 일생 역사", 교회 동굴 보관소.

⑬ 교회 정사, 5:126.

⑭ 교리와 성약 128:2.

⑮ 요셉 스미스 일기, 1843년 4월 6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5:336.

⑯ 1839년 3월 25일, 일리노이주 켄스에서 요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확신,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3:295.

⑰ 루시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간단한 전기, 초기 원본, 교회 동굴 보관소, 40, 43페이지.

⑱ 요셉 스미스 일세, 축복사 축복서 제1호, 3페이지.

⑲ 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 이세의 일생 역사", 1-3페이지.

⑳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해외의 형제들에게", 이브닝 앤 모닝 스타 II(오하이오주 커틀랜드, 1834년 2월 호).

㉑ 요셉 스미스 일기, 1835년 10월 5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2:287.

㉒ 요셉 스미스 일기, 1835년 10월 6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2:288.

㉓ 요셉 스미스 일기, 1835년 12월 21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2:344.

㉔ 요셉 스미스 일기, 1835년 12월 22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2:344.

㉕ 요셉이 엠마 스미스에게, 1832년 10월 13일, 도서관-미주리주 인디펜덴스,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동굴 보관소.

㉖ 요셉 스미스가 엠마 스미스에게, 1832년 6월 6일, 교회 동굴 보관소.

㉗ 요셉 스미스가 하이람 스미스에게, 1831년 3월 3일, 교회 동굴 보관소.

㉘ 요셉 스미스 일기, 1835년 10월 27일,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2:292-93.

㉙ 찰스 알 다나, "찰스 알 다나 장로 자신이 쓴 그의 생애와 여행 등에 대한 간략한 기록", 교회 동굴 보관소.

㉚ 메리 필딩이 머시 톰슨에게, 1837년 7월, 교회 동굴 보관소.

㉛ 윌리엄 클레이튼이 요셉 스미스의 1844년 4월 6일 연설 보고, 교회 동굴 보관소. 또한 교회 정사, 6:288.

요셉의 빨간 벽돌집 상점

폴 토마스 스미스



1841년 12월 22일, 요셉 스미스의 제 36회 생일 바로 전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구입한 13대의 마차에 실은 집이 일리노이주 나부에 도착하였다. 예언자는 새로 연 일반 잡화점의 선반에 진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받고 기뻐하였다.

요셉의 이층 건물 외부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었다. 이 가게는 곧 성도들 사이에서 빨간 벽돌집 상점으로 알려졌다.

내부를 보면 그 가게는 훌륭한 기술의 모범이었다. 요셉은 동업자인 에드워드 천터에게 쓴 편지에서 내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층의 중심부는 높이가 약 3미터로서 위로 나가는 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반과 선함으로 만들어졌으며 왼쪽에는 지하실 및 실내 계단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계산실이 있습니다. (서기가 이 사무실을 이용하여 가게의 재무 기록을 작성하고 작은 대부 기관을 운영하며 나부 하우

스 호텔 및 나부 신전 건축 기금의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 실내 계단 꼭대기의 공간에서 문을 열면 밀의 방과 똑같은 크기의 큰방 정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벽에는 카운터가 줄지어 있고 그 위에는 저장 상품이 덮여 있습니다.(요셉은 흔히 이 방을 사업 본부 사무실이라고 했다.)

“계단 앞의 문을 열면 나의 개인 사무실 또는 거룩한 기록을 보관하는 방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계시를 받고 타임즈 앤드 시즌즈를 편집하고 아브라함서를 출판할 준비를 하고 찬송가집과 교리와 성약 및 물문경을 새로 교정한 것을 인쇄할 준비를 했다.) 남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밀의 강과 멀리 떨어진 저쪽편 강변을 굽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철을 만나 선박들의 운행과 더불어 이웃과 도시의 활동과 혼란으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특별히 재미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쁘게 축복해 주실 장소입니다.” (45척 이상의 기선이

사람들은 예언자가
그의 가게의 물건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자주 감동을 받았다.

뉴올린즈로부터 나부의 부두로 개종자 이민을 실어 날랐다. 여기에는 메이드 오브 아이오아, 존 시몬즈 및 아리엘 등의 선박이 있었다.)

이 가게의 이중 문은 1842년 1월 5일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열렸다. 그리고 요셉은 대중의 반응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가게는 넘쳐 흘렀으며 나는 하루 종일 카운터 뒤에 서서 어떤 서기 못지 않게 꾸준히 물건을 다루며 약간의 설탕, 당밀, 진포도 등이 없어서 늘 있는 성탄절 및 새해 만찬을 들지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 놓은 물건은 꽤 괜찮은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사람들이 별도로 구입한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 수많은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이런 물건으로 기쁘게 될 것이므로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쁩니다.” (교회 정사, 4:49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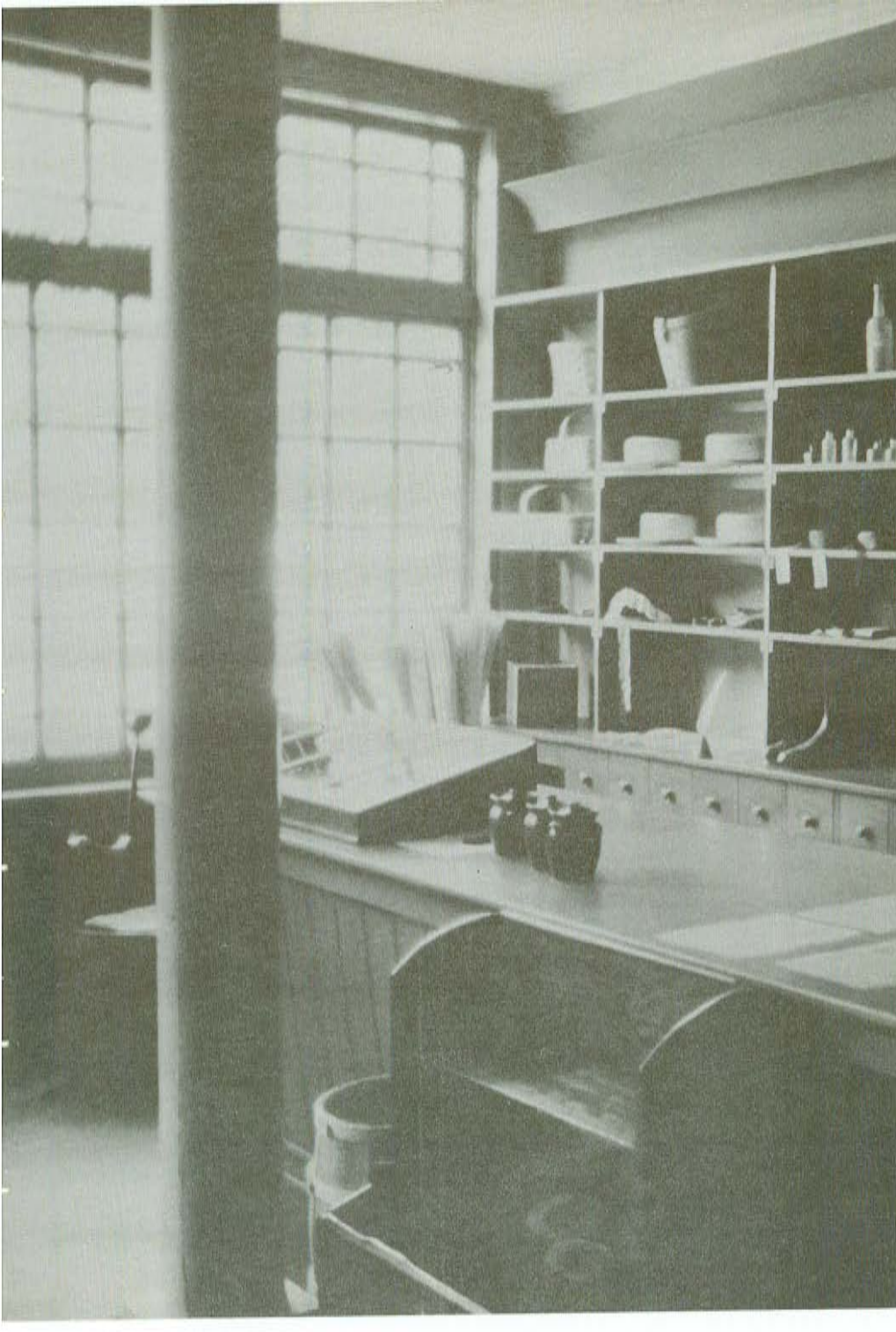
1980년대의 가격과 비교하면 음식과 물건 값이 매우쌌다. 값이 싼 것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었으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미주리주에서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친 수백 명의 회원은 소유물을 모두 잃었으며 새로운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왔다.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가 그

의 가게의 물건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자주 감동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제인 엘리자벳 매닝은 코네티컷주의 윌트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흑인 개종자로서 1843년 늦은 가을에 어머니인 엘리자, 4명의 형제 자매, 처남, 처제 및 자신의 어린 아들 실베스터를 데리고 나부로 왔다. 그들은 거의 1,280킬로미터나 걸었다. “우리는 덩불 속에, 헛간에, 밖에서 누워 자며 눈 같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여행하였으며 우리는 그 서리 위를 걸어가야 했다…… 나는 요셉 형제에게 가고 싶었다.”

그 가족이 나부에 도착하였을 때 예언자와 그 부인 엠마가 그들이 살 집을 찾을 때까지 맨션 하우스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나부에 왔을 때 나는 두 가지밖에 걸치지 못하였으며 구두나 스타킹도 없었다. 그런 것은 노상에서 다 닳아 버렸다. 나는 아름다운 옷을 가득 담은 트렁크가 있었으며 그것을 선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부에 도착하면 그것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들이 훔쳐 가서 나는 형견 한 조각도 찾지 못하였다……어느 날 아침, 요셉이 오기 전에 그 선착장에 가서 내 옷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가 들어와서 둘러보고는……엠마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가게에 가서 이 자매에게 맞는 옷을 갖다 주시오.’ 엠마 자매는 그대로 행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청녀 일지, 1905년 12월호, 551-52페이지)

제임스 헨리 몰린스는 미주리주에서 폭도들로부터 피난하여 가족을 나부로 데려가서 예언자의 도움을 구하였다.



요셉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외상을 주고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게는
 이윤을 얻지 못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그의 가게에 갔으며 그는 뉴웬 케이 휘트니에게 내가 할 만한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으며 현재로는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일거리가 있으.’ 그리고는 나를 가게의 뒤쪽으로 메리코 가서 통나무를 쌓아 놓은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나에게 도끼질을 잘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예, 조금은 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여기에 있는 서기들이 그들이 쓸 나무를 자르기에 너무 게으르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잘 드는 도끼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로린 워커를 향하여 ‘그에게 도끼를 갖다 주시오. 그에게 이 나무를 쪼개게 하고 싶소.’ 나는 바로 그날 나무를 쪼개서 쌓아 놓았다. 다음날 그가 가게에 와서 외부 지하실 문의 빗장을 벗겼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내가 물품을 다시 잘 정리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나는 한번 해보고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내가 지하실의 모습을 바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

“……이때 신전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일꾼들은 품삯을 가게에서 물건으로 받았다.

“2~3일 동안 몹시 불볏으며 내가 계산실 문에 서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동안 낮익은 얼굴을 굉장히 많이 찾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나에게 와서 내가 그들을 거들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 가게에 있던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분들을 도와 주면 어떻겠요?’ 나는 지시를 받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도와 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잡화가 있는 쪽의 카운터 뒤로 가서 그날과 그 다음날 수많은 주문을 받아 지불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 가게가 계속해서 붐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어도 50명 내지 100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다.

“요셉이 들어와서 우리가 피로하고 초췌해진 것을 보고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3일 동안 문을 열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제임스 헨리 폴린스의 ‘일생 요약’”, 교회 동굴 보관소)

요셉의 가게는 워터 거리와 그랭거 거리의 교차 지점 동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예언자의 집 가까이에 있었다. 이곳은 나무 시인들이 잘 모이는 장소가 되고 교회 지도자 및 민간 지도자들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되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타임즈 앤드 시즌즈를 구독 신청하고 신전 및 나무 하우스 건축 기금을 내고 잡화, 의류, 장비 구입 이외에도 교회의 위탁 관리인인 요셉 스미스로부터 시유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지도자들이 윗층에 모여서 대관장단 모임, 스테이크 고등평의회 모임, 나무 시 평의회, 나무 군단 모임, 나무 하우스



및 나무 신전 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그 뿐 아니라 시민들은 음악회, 강연회 및 연극을 즐겼다.

요셉은 교사들이 위의 큰방을 교실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서기에게 방해가 되었다. 에언자의 아들 가운데 요셉 스미스 3세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우리는 학생으로서 닥터 윌라드 리차즈(서기 가운데 한 사람)를 기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교실로부터 층계를 내려가면서 시끄럽게 할 때가 많았으며 이런 소음이 그를 상당히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한두 번 계단 입구에서 우리를 만났으며 우리를 못가게 막고 좀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가 발을 구르며 밀치고 계단으로 물러 내려가 문을 통하여 달려 나가면서 방해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특히 큰아이들을 꾸

짚었다. 우리는 그런 정말로 곤란한 일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웠다.”(메리 오먼서 스미스 앤더슨 및 버다 오먼서 앤더슨 홈즈, 편집인, 요셉 스미스 3세와 회복, 미주리주 인디펜덴스, 헤랄드 출판사, 1952년, 28페이지)

1843년 11월 7일,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조셉 엠 코울씨가 테이블을 다시 홀로 옮겼으며 그때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와서 학교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나는 역사 기록이 계속되고,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그에게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염려가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 일은 가장 유능한 서기들의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배도로 인하여 매우 힘든 일이었다.”(교회 정사, 6 :



66)

빨간 벽돌집 상점의 벽 안에서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842년 3월 17일 목요일에 18명의 자매가 윗층의 집회실에 모여서 요셉 스미스가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는 것을 참관하였다. 요셉은 다음 모임에서 이것이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및 모든 박애주의적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설명하였다. (교회 정사, 4 : 567)

1842년 5월 4-5일에 9명의 남자가 윗층에서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언자로부터 신전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브리감 영을 포함하여 이 형제들은 나중에 예언자가 피살된 후 나부 신전내에서 이 거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요셉은 1842년 초기에 나부 시장, 행정 장관 및 나부서 사적 기록원의

“나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승영하기 원하며
성도들의 시중을 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교회 정사, 4 : 492)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가게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다. 요셉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외상을 주고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게는 이윤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입을 잃은 것보다 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더 중요했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승영하기 원하며 성도들의 시중을 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교회 정사, 4 : 492) *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를 입증함

레나 앤 에버스

어느 날 아침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원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받을 당시 나는 아직 간증이 굳건하지 않았으므로 성서의 가르침이 과연 실질적이냐에 대하여 석연치 않게 여겼다. 그것은 내 생활에 적용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심히, 즉 원수를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을 한 번 실험해 보자고 생각하였다.

잠시 생각해 보고 나서 나에게서 진짜 적은 없다고 결론지었으므로 그것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각났다. 우리가 4동의 회사 소유 아파트의 맨 끝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우리의 옥외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 있었다. 나는 옆의 아파트에 사는 여자에게 우리 잔디에 물을

뿌리기 위하여 그녀의 수도에 호수를 연결해도 괜찮겠는지 물었다. (수도세는 없었다.) 그 여인은 내가 절대로 그녀의 수도꼭지를 쓸 수 없으며 만일 내 수도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 쓰는 것이 좋으며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여성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얼마 후 그녀가 우리 아파트의 맨 끝으로 이사갈 때 안심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옆집에 있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 설명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녀뿐이었다. 그 이외에 내가 아는 사람은 모두 친구였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매일 그 여자 아파트 옆에 있는 건물 끝의 빨래줄에 세탁물을 널었다. 그 여자는 항상 혼자 현관에 앉아 있었

다. 나는 늘 그녀를 무시하였으나 이제
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다음날 아침 빨래를 널러 갔을 때 그
여자는 평상시와 같이 현관에 앉아 커피
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보이며 쾌활한 음성으로 “안녕하
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어쨌든 해는 없어. 나는 그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따름이야.”
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옷을 다 걸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들어가 버렸다.

그 다음부터 매일 그녀의 옆을 지날 때
마다 쾌활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했으
며 그 여성은 한번도 미소나 응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약 2주 후의 어느 날 아침,
놀랍게도 그 여성이 내가 빨래를 널고 있
는 곳에 와서 날씨에 관하여 몇 마디 이
야기를 했다.

그 후로는 매일 내가 옷을 널러 올 때
마다 그녀가 와서 우리는 몇 가지 이야
기를 했으나 개인적인 것은 일체 말하지
않았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의 남
편이 모두 일하는 회사에 관하여, 때로
는 날씨, 때로는 그 지역의 가게의 할인
판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나는 우리
가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친구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 여성은 언제나 냉정하
고 마음을 닫고 있는 태도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나는 다른 지
역으로 전근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세탁물을 널러 나갔을 때 그
여성이 평상시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빨
래줄로 왔다. 나는 우리가 이사하게 된
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몇 마디 이야기했으며 나는 우리 아파트
로 돌아왔다.

내가 집에 오고 나서 약 한 시간이 지

났을 때 그 여성이 우리 문 앞에 나타났
다. 나는 그녀를 보고 몹시 놀랐다. 우리
는 서로 상대방의 아파트에 가 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성의 옆
굴에는 이상하게 긴장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였고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
였다. 그러나 사실상 할 이야기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자 놀라게도 그녀가 눈물을 터뜨
리며 가슴이 찢어지거라도 하는 듯이 호
느껴 울었다. 그 여성은 내가 떠나는 것
이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신
은 온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입니다.”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나는 아직 그 여자의 이름도 모
르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
말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
니다. 나는 그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잠깐씩 같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증거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때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번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일지라도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직접 알게 되었다. *

두 자녀의 어머니인 레나 에버스는 현
재 네바다 라스베가스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모든 좋은 선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은 뉴욕시에서 약 48킬로미터 떨어진 롱아일랜드에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숲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우리는 자연을 즐겼다. 아버지에게는 울타리를 친 큰 뜰과 바위 정원과 고기 연못, 채소밭, 잔디밭, 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모두 정기적으로 손을 보아야 했다. 여름에 잔디를 깎는 일과 가을에 낙엽을 긁어 모으는 등 항상 일이 있었다. 나는 우리가 뜰을 돌보느라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부친께서 소년 시절에 아이다호주버튼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느 날 부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프랭크 삼촌과 함께 목장에 나아가 일하지 않는 한 결코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거야.” 그래서 나는 유타주 투엘레 근처의 스컬 계곡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며 여름을 지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우리집의 그 물기 어린 녹음으로부터 스컬 계곡의 먼지나 고 삭막한 사막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이 나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환경은 유럽과 미국 동부로부터 온 개척자들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말을 듣고 첫인상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큰 도시 근처에서 자라났다. 목장 생활은 나에게 산 교육이었다. 나는

소와 말 및 추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힘든 일을 지켜 보고 감명을 받았다.

나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전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준비를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갈고 쟁기질하고 심고 가꾸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야 했으며 또 계속해서 가꾸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댔으며 그것은 끝이 없는 일 같았다. 그 여름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바로 이 거의 황폐하고 멀리 떨어진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수확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물려받은 유산의 소중한 부분이다.

수확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없다는 단순한 법칙이다. 경전에서서는 추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추수하는) 것이라고 말해 준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나는 그때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이 똑같은 수확의 법칙에 따른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다.

보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진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가게에 가서 농부나 목축업자의 창의력의 최종 결과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아름다운 채소, 과일 및 낙농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창



의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완제품에 들어간 시간, 힘은 노동, 가슴아픈 일 및 염려가 얼마나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또는 누가 쓴 글을 읽을 때 또는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도 똑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의력이라는 말은 문화적 예술, 연기 및 연주, 시각적 미술을 뜻할 따름이다. 이것은 매우 한 정적인 정의이다. 창의적인 논리를 적용시킬 방법에는 끝이 없다. 이 지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창의력의 잠재력을 보여 주셨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꽃이든 채소든 곤충이든 정말로 똑같은 두 가지 피조물은 드물다. 지구 자체도 그 계절, 광물 및 사막의 서로 다른 표면 모습, 열대 밀림, 대양, 호수, 산, 계곡, 숲, 들, 고원 등과 더불어 창의적인 표현의 끝없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창의적인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승인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다.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교성 46 : 8, 11-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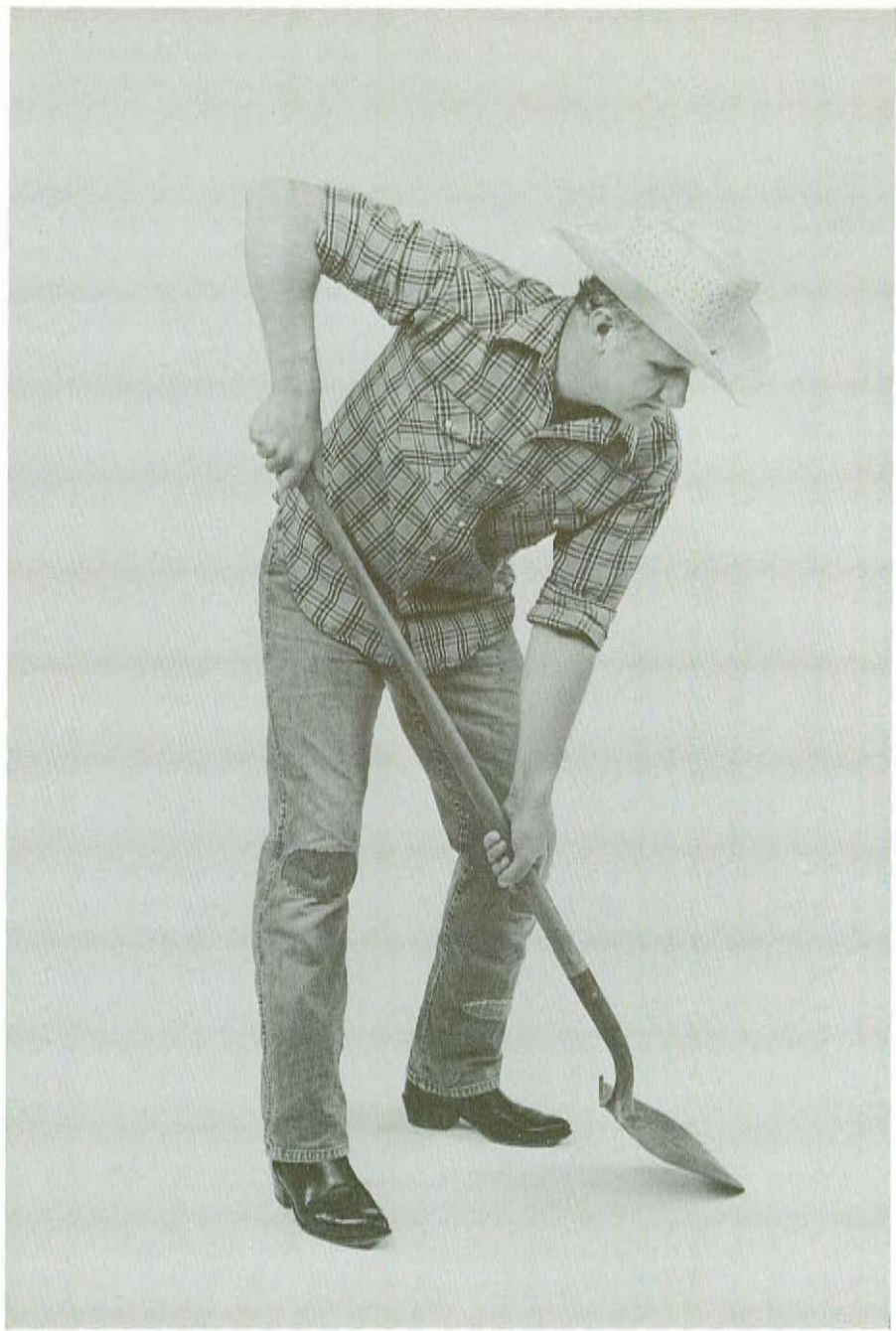
이 성구는 우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구한다면 가장 좋은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의 근원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창작, 무용, 음악, 사진 등을 사탄의 목적을 위하여 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우리의 재능을 악마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현명한 권고를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모로 10 : 30) 고 훈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악 대신에 선을 택하도록 육신의 시험 기간에 있다.

교리와 성약 52편 14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우리가 자신의 창의적인 은사를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따를 지침을 주고 있다. 분별의 은사 내지 방식은 기도와 상한 심령과 의식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온유하고 교화적인 언어와 분쟁하지 않는 것과 주님의 권세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산출하는 데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46편 10절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의 예지와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친구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칠 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라



수확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는
단순한 법칙이다.

고 대답하였다. 이 얼마나 훌륭한 교훈인가! 우리가 시도해 보기만 하면 솜아 오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숨은 재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나는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나니” (교성 46:11)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번역가 및 통역자와 함께 가까이에서 일할 때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시니 얼마나 운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다. 한번은 그 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런 답을 들었다. “저의 방언의 은사는 수천 시간이나 공부하고 수많은 실패와 낙담의 순간을 극복한 다음에야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력은 문화 예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 국한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활동에서 창의적인 작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을 개발함으로써 매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창의력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일생 동안에 마케팅, 판매, 광고, 새 상품 개발과 관련된 그런 창의력을 보아 왔다.

나는 대학원을 마친 직후 새 고용주에 의하여 마케팅 조사과에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구 모형과 매우 비슷한 제품의 새 모형을 어떻게 빨리 알아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올바르게 분류하여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새 모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우리의 현장 상담자들은 훈련 이후에도 혼란에 빠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새로운 분석가로서 우리에게 수만불씩 경비를 쓰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에 초대받았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모임 중간에 나는 자신이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그 제품의 손잡이에 갖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구형의 손잡이는 반지를 통하여 간신히 맞아들어 가지만 새로운 조절 가능한 모형의 손잡이는 맞아들어 가지 않는 것을 알았다.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구멍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 상담자들이 쉽사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시장 조사자들은 아직도 이 간단한 해결책을 헤일즈 호울 카드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메사츄세츠의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와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는 말일성도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거기에 도착하고 난 처음 며칠 동안에 그들을 잃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 일부는 결코 강력하고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와 친분을 맺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프로젝트 48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리 장로 정원회 회원이 될 새로 오는 학생은 48시간 동안 정원회 회원 한 사람과 함께 머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정원회 회원은 새로 온 사람이 살 곳을 찾도록 도와 주었다.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의 목록을 갖고 있었다.) 이 정원회 회원들이 도착하는 학생에게 우정과 형제애를 보였으며 그가 자기 주변의 길을 잘 알게 해주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정원회에 불러들여 두었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중요한 처음 몇 시간 동안에 그들을 잃지 않았다. 25년 후에도 프로젝트 48은 여전히 보스턴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역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지침과 원리가 있으나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신다.

물론경에서는 야렛 형제가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그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야렛 형제는 이미 주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배를 저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눈에 보이는 추진력이나 항해 수단이 없었다. 배 내부의 항해자를 위하여 공기과 빛을 제공하는 방법이 없었다. 야렛 형제는 기도하였으며 추진력을 얻고 항해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았다. 주님은 그가 야렛인을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

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다. (이더 2:24-25)

그러나 빛과 공기는 어떻게 하나?

야렛 형제는 배의 지붕과 바닥에 구멍을 하나씩 뚫고 구멍에 플러그를 꽂으라는 명을 받았다. 주님은 공기가 필요할 때 플러그를 뽑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야렛 형제에게 만일 물이 밀려 들어오면 즉시 플러그를 다시 꽂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모어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더 2:20 참조)

그러나 아직도 배에 빛을 공급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로 이 대해를 암흑 중에 건너게 하시겠나이까?” (이더 2:22)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 자꾸 되풀이할 때가 너무 많다. “이에 주가 야렛의 동생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쩡이나?” (이더 2:23) 그는 창문이나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어 해결 방식이 한정되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한정될 때가 흔히 있다.

야렛 형제가 취한 해결책은 16개의 투명한 돌을 갖고 가서 주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이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돌을 만지시어 이 돌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을 주리이다.” (이 3:4) 주님이 그 돌에서 빛이 나게 하셨으며 항해하는 동안 이 돌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나는 빛이 필요한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 외에도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번은 가정의 밤 시간에 아들이 주님에게 페인트 깡통에 손가락을 넣으시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빛이 나는

페인트를 배 내부에 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렛 형제는 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님은 그의 해결책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생각하고 추론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의 특성을 사용하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새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효과가 없을 아이디어와 발명품과 생활 방식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다. 창의적인 방식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잘 수양된 방식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교육과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나 인격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것은 인생의 시련을 우회하는 지름길도 아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영감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은 꾸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끊임없이 새 아이디어를 관찰하고 잘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해결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나 남의 귀중한 경험에서 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나는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관찰하는 동안 언제나 우리 삼촌의 목장에서 하곤 했던 일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다. 작물 재배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계는 훌륭한 지침을 마련해 준다.

토양을 준비함.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합당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다.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직

극적인 태도를 키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는 분위기를 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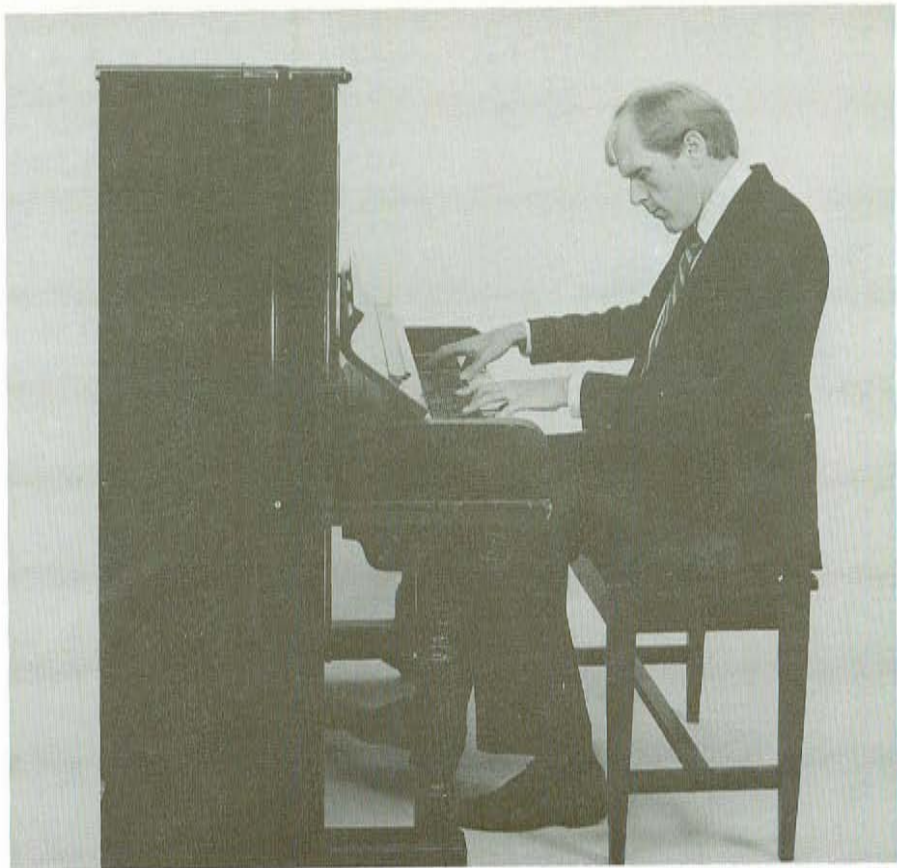
씨를 뿌림. 자신이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 결정한다. 아직은 충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결정을 내려 주도록 부탁하지 않는다. 교리와 성약 9편 7절에 있는 훈계를 기억한다. “보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씨앗이 싹트게 함.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장할 기회를 갖기 전에 뿌리를 뽑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적인 과정의 단계이며 거기에는 훌륭한, 즉 적극적으로도 위협당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아이디어가 크도록 기다리고 시간을 준다. 그러나 기꺼이 다시 노력하는 마음과 함께 기꺼이 실패를 직면할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작물을 조사함. 소속이 다른 잡초 같은 아이디어를 뽑아 버린다. 주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교리와 성약 9편 7절부터 9절까지 검토한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물을 때 영감이 온다.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8)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장 큰 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

추수.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부라도 추수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이디어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출선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스스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볼프강 모짜르트(오스트리아의 작곡가, 1756-1791)는 자신이 창의적인 과



정을 사용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를 기쁘게 해준 아이디어는 기억에 간직한다……이것이 모두 나에게 영감을 주며 내가 방해받지만 않으면 내 주제가 저절로 확대되고 조직되고 정의내려지며 비록 길더라도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나서 내 마음에서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마치 멋있는 그림이나 아름다운 조각처럼 한눈에 그것을 볼 수 있다.” (브루스터 기슬린, *창의적 과정*, 캘리포니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신문, 1952년, 44페이지)

모짜르트가 설명한 것처럼 일상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단계가 창작, 그림, 사진, 음악에도 적용된다.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부지중에 행하여진 일이 많이 있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가장 위대한 걸작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 안에서 해야 할 창의적인 논리와 추론을 활용한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주는 평화로운 확인을 주님께 간구하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의 수확이 풍성해질 것이다. *

경전에 나오는 동물



경전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일부를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각 이야기에 꼭 맞는 그림을 찾고 해당 공란에 그 동물의 이름을 적는다. 경전에서 이야기한 다른 동물도 생각해 내서 그림을 그린다. 각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들이 그 이야기에 부합되는 동물을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본다.

1.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무서운 기근이 닥쳐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_____를 보내셨다. 그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왕상 17 : 6 참조)

2.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아내를 찾도록 종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이삭이 들에 있는 동안 그 종과 신부가 될 리브가가 _____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창 24 : 63 참조)

3. 암몬이 레이멜인에게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왕의 친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이 왕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암몬은 왕의 가축 떼를 약한 사람들로 부터 구해 주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암몬의 용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동안 암몬은 왕의 _____을 먹이는 일에 바빴다. (엘 18 : 9 참조)

4. 모세가 이스라엘인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내려고 애쓰는 동안 주님이 바로와 애굽인에게 제앙을 보내셨다. 그중 하나는 _____를 제앙으로서 애굽인의 집안으로, 침대로, 밥솥으로, 심지어는 4람에게까지 들어갔다. (출 8 : 3 참조)

5.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_____가 공격할 때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삿 14 : 5-6 참조) *

아기 예수

경전 이야기(PBIC0358KO)

구세주가 태어난 지 단 8일밖에 안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이 지시한 대로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의 율법……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갔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은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눅 2:27)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았다. 그는 기쁘게 손을 뻗어 아기를 팔에 안고 마침내 그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눅 2:28)하였다. 또한 시므온은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한 다음 마리아에게 예수가 취급받는 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날 성전에는 안나라고 하는 나이 든 여자 선지자도 있었다.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주님의 영이 그녀가 보고 있는 아기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간증을 하였다. 안나는 이 훌륭한 일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는 급히 이 사건의

중요함에 대하여 들으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메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에서 마리아는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돌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를 몹시 사랑하였다.

이 당시 헤롯왕이 팔레스타인 백성과 그 주변의 땅을 다스렸다. 그는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들은 그것이 메시야가 태어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 2:2)고 말했다.

헤롯은 유대의 새 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왕국내의 모든 학자들을 모아 놓고 약속된 메시야가 어디에서 나게 되어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답하였다.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여 큰소리로 합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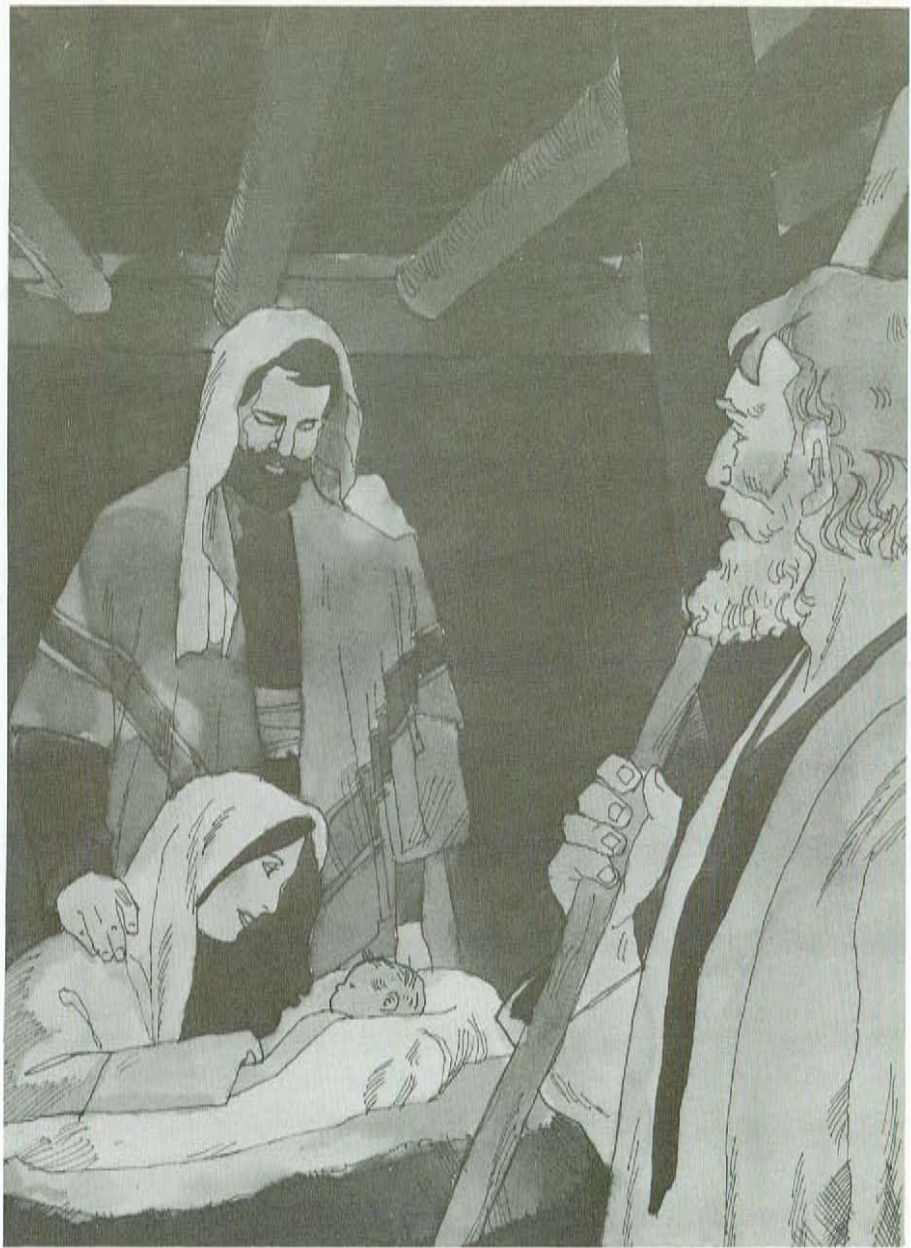
헤롯왕은 잔인할 뿐 아니라 매우 영리하였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몹시 기뻐하는 척 하고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 박사들은 떠나서 별의 인도를 받아 곧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왔다. 거기에서 그들은 “엎드려 아기(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얻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주님은 또한 요셉에게 그 위험을 알려 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와 예수를 애굽으로 데려가라고 말하고 그가 돌아와도 안전할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는 것을 다짐하였다. 요셉은 즉시 순종하여 아직 밤인데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떠났다.

헤롯왕은 곧 그 박사들이 보고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알았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에 대하여 점점 더 화가 났다. 마침내 시기심이 극에 달하여 자기 왕국내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다.

헤롯왕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큰 슬픔이 생겼으나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헤롯이 죽은 다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예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가족은 나사렛 땅으로 돌아갔으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라고 배우고 인생에서 당신이 맡은 사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미가 5:2; 마 1-2; 눅 1-2; 힐라멘 14:1-6; 니삼 1:15-21) *



이 거룩한 아들이 지상에 태어남으로써
자신을 역사상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

“그 할아버지 정말 이상하지?”라고 나단이 만 여섯 살 된 동생 비제이에게 불쑥 말을 꺼냈다. 동생은 형의 옆에서 서서 집을 향하여 더러운 길을 걷고 있었다.

비제이는 “어떤 노인말이야?”라고 물으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차 바퀴 자국으로 패인 길을 따라 12월의 비로 웅덩이가 생긴 빗길 속으로 이미 진흙이 묻은 발을 쿵쿵거리며 걷고 있었다.

나단은 “6개월 전에 켈세이 집으로 이사 온 할아버지 있잖아. 조시아 풋츠씨 말이야. 크리스마스가 3주도 안 남았는데 그는 언제나 성미가 고약하단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비제이는 개구리처럼 더러운 웅덩이를 툭툭 건너뛰면서 “한번도 웃는 적이 없단말이지?”라고 말했다.

나단은 발을 멈추고 길 저쪽에 나무가 얽힌 속에 자리잡은 잔디밭이 있는 집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 작은 마당의 경계를 긋는 흔들거리는 울타리에 기대섰다. 그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천둥이 울리고 톱날 같은 번갯불이 습기찬 대기 속을 가르며 나아갔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출전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전쟁 장면의 소리 같았다.

매우 찬 바람이 비제이를 휘몰아쳤으며 그는 짜증스럽게 만 12세가 된 형을 결눈으로 쳐다보았다. “형, 그런 걱정하지 마. 풋츠씨는 성질이 급한 할아버지일 따름이야.”

나단은 아직도 그 집을 빨리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풋츠씨도 남북 전쟁에서 누굴 잃어버린 것 같아. 아마 그 때문에……”

조시아 풋츠씨가 자기 집 앞의 뒤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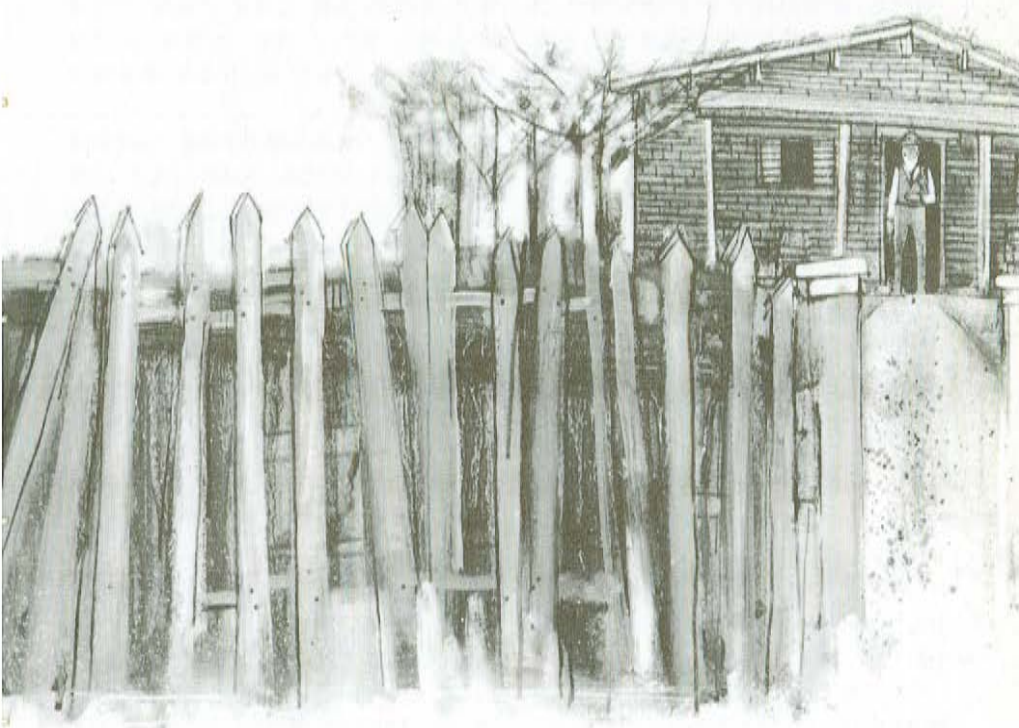
진 작은 현관 앞에 나오자 나단은 갑자기 발길을 멈추었다. 그의 귀신 같은 길고 흰 수염이 강풍에 심하게 휘날렸으며 그의 깊숙한 눈은 어떤 먼지로 보나 위의 하늘같이 어둡고 우울한 예측을 하는 것 같았다. 나단은 울타리로부터 툭툭 뛰었는데 그의 소매가 울타리의 쇠는 부분에 걸려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그 노인은 “네 이놈, 뭘 쳐다보고 있는 거냐?”라고 고함질렀다.

나단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별거

선물

레이 골드럽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별거 아닌 사람이 됐지?”

나단은 상냥한 음성으로 “그런 무례한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풋츠씨는 으르렁거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 울타리에서 없어져. 어린 말썹꾸러기가 여기에 와서 내 울타리를 부수지 않아도 나는 전쟁 중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나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산 이외에 다른 것도 잃으셨나요? 혹시 가족이라도?”

지친 듯한 고통의 표정이 떠오르며 회색의 강인한 눈썹이 조지아의 눈을 덮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나단은 불안에 안전부절해졌다. “제 동생과 저는 전쟁 중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풋츠씨는 너희들 “비맛기 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아.”라고 중얼거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경고도 없이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떨어뜨려 그 사람을 비틀거리게 해놓고 가 버리는 것이 하늘의 한 가지 방식이다.”

나단은 그 할아버지가 절망에 빠진 것을 알았다. 나단은 아마 뫼츠씨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동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시나 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에 관하여 모르고 계셔.

할아버지의 음성이 나단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도대체 뭘 바라고 서 있나?”

나단은 나무를 잡아당기고 어머니가 다음날 빨래할 물을 갖도록 빗물을 모으기 위하여 처마 끝 밑에 빗물통 뚜껑을 열기가 무섭게 급히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가 거드랑이에 무언가를 잠추고 문으로 나가는데 어머니가 불리 세웠다. 어머니는 “애,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라고 물었다.

“그냥 뫼츠씨에게 뭘 갖다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나단은 거드랑이에 끼운 작고 낡은 성경을 보여 드렸다.

어머니는 “네 성경을? 왜?”라고 말씀하셨다.

나단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이것을 두 번 읽었어요. 이 성경이 저를 도와 준 것만큼 뫼츠씨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뿐 아니라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전쟁 이전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주신 물문경이 아직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제가 볼 수 있는 가족 성경이 있잖아요.” 나단은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보았다. 여기에는 뫼츠씨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그 페이지에 표시해 두었어요.”

비 제이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아마 그걸 던져 없애 버릴거야.”

나단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울거야. 나는 그 할아버지 집 옆을 지나면서 내가 적어도 그의 상처를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 일이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거야.”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며 눈에 이슬이 맺혔다. “나단, 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네 아버지를 닮아 가는구나. 우리는 바로 이 마을에서 또 한 사람의 훌륭한 물문 선교사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나단은 뫼츠씨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 잠시 멈추고는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하여 문을 두드릴 뻔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성경 표지제 안에 짧은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다 쓴 다음 현관 위의 의자 위에 책을 놓고 울 배처럼 가만히 그곳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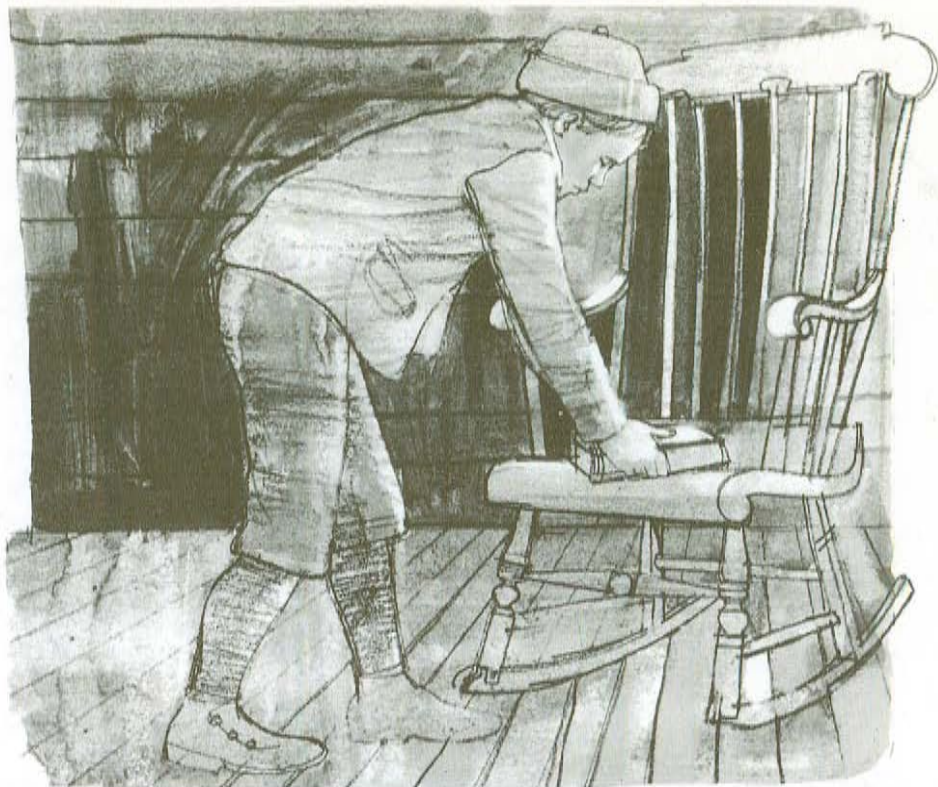
나단은 이를 후 조시아 할아버지 집 옆을 지나다가 그가 “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간막이 문 뒤에 서 있었다. “왜 너에게 성경을 주었지?” 그리고는 해답을 들으려고 현관 위로 걸어 나왔다.

나단은 숨을 잔뜩 들이마셨다. “할아버지, 성탄절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선물이예요.”

그 노인은 나단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색한 미소가 슬픈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왜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게 되었지?”

나단은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할아버지는 눈도 깜박하지 않고 그



를 보면서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너는 그 성경에서 이런 구절에 표시를 하였더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단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처럼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아야, 무엇이든지.”

나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할아버지, 우선 이번 일요일에 한 시간만 시간을 내시면 어떻겠어요? 저희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와 비 제이와 저와 함께 교회에 가지지 않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잘 생각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몇 분 후 나단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단은 걸어가면서 이상한데, 정말 마음이 훈훈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였다.

그해 성탄절에 조시아 풋츠 할아버지가 니파이 쿨 감독으로부터 추운 워터 크리크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단은 할아버지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 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

성도의 빛의 새로운 모습 (정규 규격의 잡지)

교회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성도의 빛 지역 소식란에는, 지역 성도의 개종 이야기, 스테이크 단위의 모든 행사, 지역 사회에 공헌한 이야기, 특별한 간증, 지부 개설, 신학 연구원 행사 등이 실릴 예정이다.

1985년 1월호부터 “성도의 빛”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판된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현재의 포켓판에서 일반 잡지 규격으로 출판할 것을 승인했다. 교회 본부 잡지 편집장인 래리 힐러 형제에 의하면 잡지의 규격이 커지더라도 페이지 수는 예전의 포켓판과 같으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대서양 전역의 교회에서 출판된 16개 국어의 모든 번역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잡지의 새로운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1978년에 작은 규격으로 바꾼 것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으며 다시 현재의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체제가 회원들에게 더욱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교회를 잘 대변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또한 교회 잡지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맺어 주며 유용한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체제 바꿈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을 보면 출판 계획상의 변화를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체제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 기금이 할당되었다. 힐러 형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페이지규격이 배로 커졌기 때문에 매년 출판 회수를 같게 하자면 비용도 두 배 이상 들지 않

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회 특집호가 아닌 정기 간행물은 격월제로 발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의 연차 대회 보고를 더하면 1년에 8회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자들에게 매년 기사를 조금씩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격월제로 발간되는 정규 규격의 잡지를 통해 우리는 독자들에게 더욱 흥미있는 기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삽화나 사진을 더욱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85년부터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되며 연차 대회 보고는 예전(1월, 7월)과 같이 발간된다. 성도의 빛 편집실에서는 교회 본부의 지시에 따라 종전의 지역 지도자 메시지란에 지역 성도의 개종 이야기를 실기로 하였다. 또한 스테이크 단위의 모든 행사와 지역 사회에 공헌한 이야기, 특별한 간증, 지부 개설, 신학 연구원의 행사 등의 소식이 실릴 것이다. 기사 내용은 행사가 있는 직후 때와 장소 모임의 목적 그리고 간단한 느낌 등을 적어 보내면 검토한 후에 게재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 소식이 좀더 늦게 게재될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것은 격월제로 발간되는 월간지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독자 제위의 충분한 양해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